

10年顧

許仁旭

(대한석유협회 조사과장)

50%가 넘게 석유값을 인상한 것만 두차례, 제2차 오일쇼크가 일어난 '79년 겨울은 더욱 추웠다. 겨울이 추울수록 봄은 따뜻하고 온화할 것인데,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는 그렇지 못했다.

납덩이가 내리 누르는 것 같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여러 방면과 계층에 숙정과 통·폐합(협회, 유관기관 등)의 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서 석유협회가 태어났다.

삼일로빌딩에 사무실을 마련한 협회는 24명의 인원으로 힘차게 스타트 라인을 출발했다. 그것이 벌써 10년이 되었다. 그러나 출범 당시의 희망과 의지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구성원이 바뀌었다. 그동안 협회를 거쳐간 사람이 모두 34명이나 된다. 협회의 현구성원보다도 많은 숫자이다. 2년마다 구성원의 25%가 바뀌는 어수선 함이 지금도 아쉽게 생각되지만, 어쨌든 10년을 맞이하는 지금, 협회는 보다 업무영역이 광범위해지고 더욱 믿음직스러워졌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는다.

오늘 이왕 紙面이 할애되었으니, 우리 협회의 PR을 포함해서 평소의 바람이었던 것에 대해 몇가지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협회의 자량은 업무부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회원사, 정부기관, 유관기관 등에 대한 얼굴이며, 대내적으로는 심장파도 같다. 회원사간 異見조정업무와 調整意見의 對政府 건의, 석유수출입 추천등을 맡고 있다. 업무부는 특히 회원사에 대한 직접지원 부서이다.

정책변화에 민감하고 대응책 마련에 순발력과 지구력을 필요로 한다. 또한 회원사간利害대립을 완화 또는 해소 시켜야 하고 더욱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점이 공통스럽다. 『1년에 200회가 넘는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회의의 회수도 많지만 案件이 광범위하고 깊이와 무게가 실려 있어(이점에 있어서 오늘, 특히 회원사 업무부 임·직원의 노고가 많음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 전문가들도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거기다가 거의 매일이다시피 외부로 출장을 나가야 하는 현실에 이르러서는 그 정신적, 신체적 노력과 결과에 후한 평가가 필요하다.

나는 업무부에서 6년 반 가량 근무했다. 되돌아보면 우여곡절도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세상의 陰陽이 정연한 것이니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랄 수 없다. 그러나 바쁘게 지내온 경험이 지금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거기서 좋은 친구들을 만났다. 그들을 만난 것은 일종

의 깨달음이었다. 석유험회가 왜 존재하는지, 어떤 자세로 근무해야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그들은 항상 뛰어났다. 원인과 현상을 깊이있게 파악, 분석하고 그 대응책 마련에 고심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내가 갑자기 커 보이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 그들과 같이 근무하는 시간은 그리 지루하지 않았다. 오랜 죽마지우보다 더 친근하게 느껴졌다. 밤을 하얗게 새워도 별로 피곤한 줄 몰랐다. 팀 워크도 잘 맞았고 서로간의 理解정도도 통상의 수준 이상이었다.

대과없이 업무부를 떠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그들의 도움 때문이었다. 이 기회를 빌어 다시 한번 모두에게 감사 드린다.

이야기가 약간 엇나갔다. 다음은 홍보실인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외국에서도 직접구독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으로도 그 권위와 내용을 인정받고 있는 석유험회보를 매월 발간하고 있다는 것이 큰 자랑이다. 그것도 불과 4명의 인원으로.

이 협회보는 '81년 3월에 창간되었으며, 당시 이 분야는 거의 불모지대와 같았는데 협회보가 편집, 내용등 거의 모든 면에서 선도적 역할을 확실하게 해 냈다.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요즘의 석유등 관련잡지는 거의가 석유험회보를 모방한 것이라고 하면 과찬일까, 국내의 석유관련기관, 단체들 중에서 석유문제(특히 정책문제)에 관한 한, "가장" 깊이 있고 "가장" 읽을 것 있고, 보관해서 "가장" 쓸모있는 "가장"이란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협회의 자랑이며 업계의 얼굴이다. 그밖에도 Petroleum Industry In Korea(年刊), 기타 부정기 간행물도 많이 발간하고 있다. 대국민 홍보는 지면 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다음은 기획부인데, 지금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이며, 특히 자랑할만한 것은 없다. 모든 직원이 열심히 일한다는 것 외에는.

기획부는 국내의 각종 석유정보의 수집 및 보급, 외국 유사기관등과의 교류, 각종 통계 조사 및 처리, 기술관련 업무등을 맡고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週刊 석유정보 다이제스트로 해외 간행물 기타의 소스를 통한 정보를 신속히 정리, 보급하는 주간지이다. 매주 48부로 제한되어 있어 배포부수는 많지 않지만 독자들로 부터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Special 간행물이다. 그밖에도

석유연보, 석유통계자료(月刊), 연구자료등이 발간되고 있으며 특히 신속한 통계자료가 정부 및 회원사의 각종 정책수립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

이같은 무례한 자화자찬의 PR에 대하여, 협회의 업무를 어느 면에서 피상적이며 수동적이라고 질타할 분도 있을 것이다. 다소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앞으로 더욱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자세로 봉사하겠음을 다짐한다. 부끄럽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데.

자랑 가운데서 더욱 협회가 발전되었으면 하는 나의 바램이 있다.

협회 구성원의 25%가 2년마다 바뀐다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면이다. 이유야 어찌되었든지 이런 지독한 이직률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첫번째의 큰 바램이고 이를 완화 시키는데는 회원사의 전폭적인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

두번째의 바램은 상근 임원과 부서장사이에 중간관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사실 임원의 임기가 너무 짧아 부임후 중요한 위치에서 석유문제를 포함한 제반문제에 관한 권위자가 될 즈음이 되면 바뀌게 되고, 또 그 업무영역과 역할이 너무 광범위하여 대내외적으로 수월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세번째로는 조사과에서 처리하는 수급자료의 문제인데, 현재 처리하고 있는 통계자료는 신속·정확하여 동자부, 회원사, 유관기관등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좀더 깊이있고 세분화 된 자료(예를 들면, 지역별, 용도별, 산업별 판매실적등)는 많은 회원사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쉽게 구할 수도 없고 처리할 수도 없다. 현재 이와 같은 자료를 처리하고 있는 기관이 있기는 하지만, 자료의 협조가 용이하지 못하다는데 큰 불편이 있다고들 이야기한다.

이를 완화 내지는 개선하기 위해 회원사의 협회에 전산시설을 확충하고 전산통계과 정도를 하나 두면 어떨까. 조직의 10년인데 그렇게 획기적이지는 못하더라도 무언가 발전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紙面에 내가 격에 맞지도 않고, 분에 넘치는 문제에 대한 얘기들을 건방지게 썼지만, 읽어주시는 분들의 河海같은 雅量과 配慮와 사랑을 기대한다.♣